

(설 화)

제 목 : 봉이 김선달 한강 팔어 먹은 이야기

제 보 자 : 이 성 근 ( 남. 당 82 세 )

주 소 : 구리시 동구동 15

조사일시 : 1997. 12. 3. 이성근 가

내 용

그 참 저을개 저 어름 언뒀에 이럭케 건니다 주욱 주욱 늘어 났거든요 이럭케 한 이천평 한 삼천평 돼게 거기가 좀 널벼요, 주욱 주욱 첫머리 서 부림 논두렁 처럼 이럭케 주욱 나두구 또 저기가다 주욱 나두구 그랜는데 눈이 실적 온단 말이죠 그래니깐 논두렁이 그게 제절루 주욱 주욱 근니 생겼단 말이죠 그래 그 서울 부자를 데려다 노쿰 이게 가문설 꾸며가주구 했평수 이게 한 십만평 되는데 이거 싸게 팔텐데 내가 돈이 아수니깐 팔텐데 이게 팽팡한 고래신이요 이랬말이죠, 참 논 조타구 그래 엔날엔 어수룩헌지 와서 이럭케 이럭케 보니깐 논두렁이 참 서있거던요 요럭케 이거 호랭이가 담배 먹었죠, 아 수수깡을 주욱 주욱 이어 낫스니깐 논뚝이 주욱 주욱 강근니 노쿠 또 저만치 가서 주욱 주욱 노쿠 그랬스니까 안만평 이래니깐 가문설 맨디려 가지구 팔었단 말이죠, 그래 그 지끔으루 말허든 참 크게 돈을 받으려구 메백냥 예길 해가주구 참 받았는데 엔날엔 백냥이래든 엽전이 좀 무거워요 말케루 실어다 쥐서 부자가 됐는데 그해 가을이 됐는데 어디 베즘 가봐야 겠다구 가보니깐 (제보자: 웃음을 참지 못하며) 올라서서 보니깐 시퍼런 강물이 벌럭 벌럭 내려 간단 말이죠 아 그래 논이엿섰는데 으떻게 이게 강이야 이랬거죠 아 동네 사람덜이 어서 오셨세요, 그래니깐 아 내가 아무개 봉이 김선달이 현태 이걸 땅을 샀는데 거 문서좀 보우 평수가 안만평인데 이게 장마가져서 개울이 졌나 이거 왜 이라 벌럭 풀렸죠 무신 아 그 잘못사셨습니다, 아 엔날부텀 이게 강이지 뭐 한강이 메천년전 부터 있는건데 아 시방 생긴줄 아세요 이강을 사셨세요, 그래니깐 아 논이 멧섬지기 라구 그랜는데 이게 강이 됐소 그래니깐 아휴 벌레 강이예요, 무슨 논이예요 논이 그 잘못아셨죠 아 이눔한태 이거 속았구라 이런 우라질눔 어디가 붓들어야 지끔은 참 뭐 주민등록 있구 뭐 그래니깐 아 여기서 저 피양 것튼데 가서 흥천만천 싸구 있스문 거 어디가 있는지 차져여 어휴 영 못차졌지 뭐 그

또 팔아서 메백냥 메백냥 반어가주구 이집인 잘살구 억울허구 -----  
그랜 협작질만 했서요 봉이 김선달이 -----  
그래 역적에 후손이라구 -----